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용 주(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 김 정 민(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따라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 배경변인(형제관계, 출생순위, 부모연령, 부모학력, 부모직업, 월평균소득, 그외 동거인)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지각과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아버지 역할수행지각에 따라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소재의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수행지각,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총 760부의 질문지를 실시한 후 자료로 유효한 65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증, 일원변량분석, Scheffé 사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지각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버지의 자녀교육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지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서표현능력과 감정이입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학년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지각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지능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정서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적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경변인(형제관계, 출생순위, 부모연령, 부모학력, 부모직업, 월평균 소득, 그외 동거인)에 따른 청소년의 아버지 역할수행지각은 어머니의 연령과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직업,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아버지의 연령과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는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지능은 아버지의 연령과 어머니의 직업, 월평균 소득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형제관계와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아버지 역할수행지각에 따라 아버지 역할수행지각 상집단은 중집단과 하집단에 비해 정서지능 하위영역 중 정서인식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조절능력, 정서활용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행동 하위영역 중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소년 자녀양육에 대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의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수행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심리치료 부모교육현장에서 아버지 역할 교육프로그램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